

<2022학년도 2학기를 맞이하며 학생에게 보내는 인사말>

“여러분의 꿈을 힘차게 응원합니다”

사랑하는 학생 여러분!

짧은 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.

높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가득한 걸 보니 이제 가을입니다.

방학 동안 무더위와 코로나 재유행으로 학습활동과 여가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죠?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고 취미를 즐기며 현명하게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.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.

앞으로 전북교육청은 ‘학생중심 미래교육’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.

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, 모든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. 한 학생의 작은 의견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. 학생 여러분을 자주 만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겠습니다. 현재 전북학생의회 등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여러분의 소통과 참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.

나아가 생태전환 및 평화공존 등의 미래가치와 비판적 사고력, 협업능력, 소통능력 등 미래역량을 지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.

미래교육의 기반은 기초·기본학력입니다.

전북교육은 여러분의 기초·기본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기초학력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삶에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배움입니다. 탄탄한 계획을 세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실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.

제가 그리고 전북교육청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.

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,
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길 바랍니다.
교육감으로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향한 정진을
온 마음 다해 응원하고 그 곁에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.

마지막으로 철저한 개인 방역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.
사랑합니다.

2022. 9. 1.

전라북도교육감 서 거 석